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티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데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오즈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경 토니 (안토니오)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음악과 테니스**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체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번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 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 용자 켈리김 770-634-5646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조앤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art 건너편,  
 (파비야노) Bank of America 뒷길

**TOP Lawn Maintenance**  
**조경**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배용자(루시아)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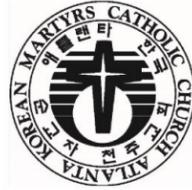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스와니 교정 치과**  
 교정전문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 주말 예약 가능 | 카톡 상담 (suwaneeortho)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매운 음식은 습니다  
**T. 770.454.5640**  
 592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 십자가, 선상 • 금, 은, 주문제작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Suwanee Wal-mart 내 • 리-셔츠 프린팅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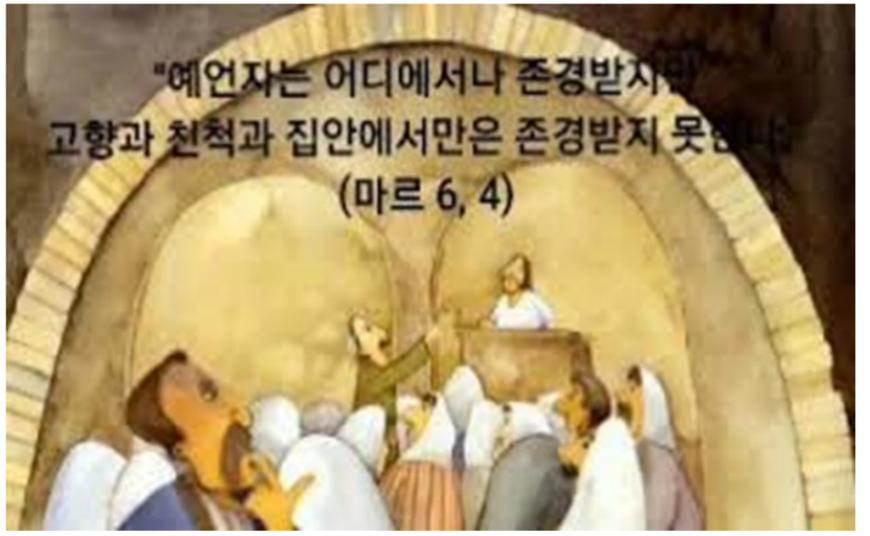
#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com>  
 E-mail: [kmccga.office@gmail.com](mailto: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 2102호 2021년 7월 4일 | 연중 제 14주일 | 발행인: 이영석 세례자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 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
  - 오후 1시 (영어미사) 매일
  - 첫째, 셋째 주일 봉헌
  - 월: 없음
  - 화: 정오 12시
  - 수: 오후 7시 30분
  - 목: 오후 7시 30분
  - 금: 정오 12시
  -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 고백 성사
  - 미사 시작 20분 전
- † 혼인 성사
  -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 사무실로 연락
- † 사무실 시간
  - 일: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 월: 휴무
  - 화 ~ 금: 오전 10시-오후 5시
  - 토: 오전 10시-오후 5시
- † 본당신부
  - 이영석 세례자 요한  
 Johann Young-seog Lee, S. J.  
 20seog@hanmail.net
- † 사목회장
  - 성정창 풀젠시오  
 Fulgentio Jeong Seong  
 470-296-1030  
 kmccga.seong@gmail.com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 마르코 6,1-6 >

**성 가** 입당: 77 봉헌: 218/220 성체: 188/151/154 파견: 6

**제 1 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2,2-5 <반항의 집안도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화 답 송**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제 2 독서** 코린토 2서 12,7-10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 6,1-6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영 성 체 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신앙체험 수기 수상작

고향

● 장려상

고향

내 어렸을 때 기억은 '그리움' 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6살 때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나는, 늘 엄마와 가족이 그리웠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었지만, 나는 아직도 무언가가 그리고 늘 쓸쓸했던 소심한 아이였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 거창하게 자서전이라도 쓰는데 느껴지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년 아줌마가 되어서야 찾은 내 마음의 고백을 한 줄 써 보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시작된 나의 외로움과 쓸쓸함은 사춘기가 되어서는 더 심해졌다. 고 1때 일이다. 그날은 날씨가 흐렸는데, 웬지 내 기분도 무척 더 쓸쓸하고 슬펐다. 자율학습을 하며 창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마치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함께 우시는 하느님의 눈물 같다고.

교회도 성당도 다니고 있지 않던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저 감성 충만한 사춘기 여고생이었던 것 같다. 나는 다른 주말 자율학습이 있던 날, 무언가에 이끌려 학교 앞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다. 그저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을까? 태어나 예배라는 걸 처음 봤는데, 사람들은 낯선 나를 위해 과하게 친절했고 예배는 생각보다 시시했다. 그러다 '기도합시다' 라는 선창과 함께 사람들이 모두 각자 웅성웅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모두들 격한 감정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등 정말 다양했다.

충격이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난 덩달아 울고 있었고 평평 눈물을 흘렸다. 나는 기도가 무언지도 몰랐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분위기가 나를 울게 했다. 예배가 끝나고 나는 도망치듯 부리나케 거기를 빠져나왔다. 뭐 지? 왜 울었지? 마음의 위로는 커녕 오히려 더 허전하고,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린 이런 상황에 짜증이 났다.

나는 그 후로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다. "성당에 한 번 가볼까?" 하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2학년때 친구 엄마를 따라 성당을 갔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 기억으로는, 성당의 그 조용한 분위기가 좋았고 신부님과 제단이 무척이나 신기했었다. 그리고 미사 중간에 모두들 나가서 무언가를 받아 먹길래 나도 따라 나가 받아 먹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게 성체였고 세례도 안 받은 나는 너무도 당당히 납작 받아 먹었던 것이다.

결심을 하고 다음 주말이 되어 나는 집 근처 동네 성당에 갔다. 교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유난스레 친절하지도 않았고, 시끄럽게 기도 하지도 않았다. 내가 혼자 있기에 좋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편한 기분이 들었다. 일사천리로 교리를 보고 세례를 받았다. 이제는 주말이 되면 미사를 보는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고 2때 문득 나는 수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뭐랄까? 난 그냥 수녀가 참 좋아 보였다. 아니 행복해 보였다. 그때 한참을 수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젖어 지내다가, 문득 난 저 회색 수녀복이 맘에 안 들고, 게다가 하이힐 구두도 절대 못 신

는다는 생각에 포기하기로 했다. 그때는 나를 진지한 고민이었다. 사실 나는 지금도 주얼리나 명품백에는 관심이 없지만, 예쁜 옷에 대한 애착이 많다.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는데, 나의 저 깊숙한 공허함과 외로움은 커져만 갔다. 사실 세레만 받았지 아무런 신앙생활을 알지 못했다. 사실 주말에 미사 드리는 일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대학에서 CCC라는 성경공부 단체에 가입을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는 가톨릭관련 동아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모든 종교는 결국 바라보는 한 지점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나에게서는 개신교 단체라는 게 상관이 없었다.

성경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며 함께 기도 활동도 하는 이 모임이 나는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안 아빠는 이 단체가 사이비 종교라며 오해를 하고 반대를 하시더니, 급기야 선배들의 숙소까지 찾아가 깡 판을 놓으시는 바람에 나는 더이상 참피해서도 이 모임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내 대학생할 내내 그리고 20대 내내 나의 허전한 마음을 남녀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첫사랑, 그는 거짓말쟁이라 헤어졌다. 누나 하며 따르던 잘 생긴 동생은 너무 치근덕대서 헤어졌다. 이렇게 하나 둘 사귀었지만 결혼에 전혀 뜻이 없던 나였기에 사귀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헤어졌고, 또 진심 어린 사랑이 안 느껴지면 헤어졌다. 나는 순도 100%의 사랑을 원했다. 진실한 사랑, 나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사랑만을 찾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으니깐.

그렇게 하이에나처럼 나는 사랑이 고파 계속 기웃거리는 사랑만을 했다. 그러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일에 대한 야망이 생겼고, 사랑에 대한 갈증도 조금은 줄어든 듯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동생이 결혼을 했다. 함께 살던 동생의 빈 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당시에 나는 남친이 없던 터라 친구들이 소개팅을 해줬지만, 이제는 내 나이가 결혼 대상으로 남자를 사귄 나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결혼 생각이 없던 나는 아무리 근면 성실하고 직장도 탄탄한 소개팅 남도 맘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동생 남편의 절친이며 결혼식때 증인이었던 이 남자가 나에게 흑 들어왔다. 내 스타일도 아니고 잘 생긴 것도 아니다. 게다가 어릴 때처럼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지만, 왠지 모를 믿음이 갔다. 나는 이때, 사랑보다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다. 정말 갑작스럽고 나 답지 않은 정말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놀라는 그런 선택이었다.

그렇게 그를 따라 잘 다니던 회사도, 가족도, 친구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왔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년 미국 생활은 어둠의 정점을 찍었다. 나는 철저히 외로웠고, 질투했고, 아팠고,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도 넘겼다. 미국 생활을 다 얘기하려면 하루도 모자를 테니 시작도 할 수가 없겠다. 다만, 지금 나는 매일매일을 처방된 아주 독한 두통약으로 버티며 살고있다. 이 두통약 없이는 하루도 평범하게 살 수가 없다. 결혼 전 한국에서의 29년이 사랑에 쫓겨 산 세월이었다면, 결혼 후 미국에서의 20년은 업신여김과 수치심의 세월이었다. →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김송옥(데레사)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민병숙(라파엘라)	
박덕자(빅토리아)	
박정자(데레사)	
박평하(요한)	
유옥희(모니카)	
이금숙(세실리아)	
이수진(브렌다노)	
이창옥(크리스티나)	
조경희(글라라)	
채중현(아오스딩)	
최대일(프레드릭)	
최순례(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1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구역분과	
고영호 770-827-9987	
성모회	
이남수 770-310-4546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예비신자 교리반	
나상숙 678-933-7313	

선교분과	
박순기 678-793-5881	
레지오 마리아	
왕희숙 352-359-4283	
성령기도회	
오영숙 404-518-5881	
울뜨레아	
이경환 678-713-4650	
M.E.	
손영덕 678-896-1837	
C.L.C.	
이형주 404-409-1220	

대건한국학교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안내



- 모집 대상 :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 수업 기간 : 2021년 8월14일~12월11일 (16주간)
- 수업 시간 : 매주 토요일 09:15-12:30
- 수업 내용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 특별 과 목 : 서예/한국화, 미술, 한국무용,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 주요교내행사 :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낱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력대회
- 등록 일 자 : 5/1~5/9 (추가등록:8/14까지)
- 등록 금 :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교지\$10포함)
- 등록 장소 :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 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네오미시아)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이용방법
-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어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SO GOOD (파티, 웨딩드레스 전문점)



Duluth 매장: 678.474.7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www.sogoodbridal.com  
www.sogoodbb.com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본당 성물방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30~오후 1:00  
(예약 주문/상담가능)

최고의 보험회사와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 병 들었을 때 미리 이용할 수 있는 보험  
✓ 확정이자로 10년째 원금의 2배 보장  
최미영 헬레나 404-918-0424

# 2021년 AA 기금 납부 현황 (6월 27일 현재)

교구 할당액: \$57,900      누계 약정액: \$24,520

금주 납부액: \$225    누계 납부액: \$34,705    달성율: 59.9%

2021 AA 기금 금주 납부자: 7명

김상순 김원봉 박해영 소중선 손철영 이성철 장민재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AA 기금 약정을 부탁드립니다.

## < 구역장 감사패/임명장 수여 >

6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에 그동안 열심히 봉사해 주신 전임 구역장님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과 새로이 구역을 의해 봉사해 주실 새 구역장님들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 ◆ 전임 구역장

Alpharetta-2: 소진주 (안나)  
In Town Atlanta: 전홍 (토마스)  
Sharon Springs: 김영배 (베드로)  
Marietta-사랑: 엄정인 (프란치스코)  
Tucker: 민병선 (젬마)

### ◆ 신임 구역장

Alpharetta-2: 조경희 (글라라)  
In Town Atlanta: 도효준 (그레고리오)  
Sharon Springs: 김용준 (로마노)  
Marietta-사랑: 송창률 (아오스딩)  
Tucker: 민병선 (젬마)/유임



## < 그룹성서 공부반 교재 배부 >

6월 27일(일) 오전에 그룹성서 공부반 교재를 배부하였습니다.



꺼져

< 마르코 6,1-6 >

배영길 베드로 신부

꺼져.  
어딜 넘보는 거야.

난, 겁먹지도  
약해지지도 않아.

그러니 그만하고,  
꺼져.

난,  
너의 뭉이 아니야.  
그러니 가라.



오늘 고향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릴 적 함께 뛰노시던 친구들과 이웃집에 사시던 아주머니, 아저씨들, 친척들, 형제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마르코 6,2)하시자 많은 이가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마르코 6,2) 하며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마르코 6,3)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시며 슬프고 마음 아프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저 자신도 그 많은 이들 중 한 사람으로서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웃이나 친지가 잘 되면 말로는 축하해 주면서



## 오늘 복음 산책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 마르코 6,1-6 >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마르코6,6)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삶의 굴곡에 휘청일 때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이러한 제 자신의 부족함도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 안의 편견, 시기, 질투, 믿지 못함이 이해, 믿음, 나눔, 사랑이 되어 이웃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청해 봅니다.  
**성찰**  
나와 다르거나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편견, 시기, 질투, 불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점점 더 나는 자신감을 잃어갔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최대한 줄이며 살고 있을때, 갑자기 코로나라는 전쟁이 터진 것이다. 모두가 집에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나는 싫지만은 않았다. 내가 집에 있어도 되는 공식적인 이유가 생긴 것 같았고, 내가 집에만 있는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랄까. 그러다 CLC영신수련 과정을 ZOOM으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둘째를 낳기 전에 CLC에 가입을 하고 19번 피정을 하다가 임신이 되면서 그만 두었었는데, 그 뒤로 다시 들어가려 했으나 규정상 다시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들어야 한다 해서 그런 이후로 더이상 CLC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다. 이번에 ZOOM으로 하는 과정이라 나에게 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영신수련 과정 안에서 나는 많은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껏 산 세월이 오직 나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미국생활 20년의 그 수많은 아픔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여정의 길이었다는 사실. 주님은 늘 내 곁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나의 외로움, 허전함, 그래서 내가 그토록 밖으로 떠돌며 찾아 헤매던 그 온전한 사랑. 그것은 오직 주님 뿐이며,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껏 늘 내 안에 계셨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에 내 허전하던 가슴이 채워지는듯 했고, 또 한편으로 주님께 너무 죄스러워 눈물이 났다. 나는 내 인생 굵이굵이 돌아돌아 결국 이렇게 늙고 병들고 나서야 내 님의 집,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더 젊고 예쁠 때는 밖으로만 돌다가 이제 이렇게 늙은 아줌마가 돼 서야 나는 내 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님은 죽었다 돌아온 아들을 반기시듯 나를 반기시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는 님이 시어. 저는 이제서야 내 사랑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2021년 6월 27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333명	
특전 미사	57명	오전 8시 30분	97명
오전 10시 30분	179명	영어 미사	-명
청소년 기금	\$ 1,000.00	감사헌금	\$ 220.00
교무금	\$ 3,540.00	주일헌금	\$ 3,889.00
온라인 교무금	\$ 1,250.00	온라인 주일헌금	\$ 2244.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21년 6월 27일)

강월석 (6)	박해영 (6)	이진승 (6)
계춘자 (1~6)	서영규 (5~6)	이홍철 (5~6)
김남우 (6)	소종선 (6)	장민재 (7)
김봉섭 (6)	신승재 (6)	
김성강 (6)	양희영 (4~7)	
김세경 (4~5)	이김애자 (6)	
김영배 (1~6)	이덕환 (6)	
김원봉 (7)	이복화 (5~6)	
남현석 (7)	이상엽 (6)	
민수중 (7~8)	이성철 (6)	
박성권 (7)	이안나 (7)	

금주 후원금

청소년 기금	익명
Covid-19 Fund	-
감사헌금	박민교 이계진 정창래 최옥란
Angela Fund	-

미사 위생 지키기

	7/4	7/4	7/6	7/7	7/8	7/9	7/10	7/11	7/11	7/13	7/14	7/15	7/16	7/17
	주일 10: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토 7:00	주일 10: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토 7:00
체온측정 1 (정)	이상용	고영호	김성애	신인균	신은경	김유니스	박희진	이상용	고영호	김성애	신인균	신은경	김유니스	박희진
체온측정 2 (부)	-	-	-	-	-	-	-	-	-	-	-	-	-	-
안내/방역 1 (정)	이영숙	박재석	원선미	이숙자	오영숙	이영숙	유성희	이영숙	박재석	원선미	이숙자	오영숙	이영숙	유성희
안내/방역 2 (부)	이숙자	오영숙	-	-	-	-	연규정	이숙자	오영숙	-	-	-	-	연규정
안내/방역 3 (부)	서상희	원동훈	-	-	-	-	-	서상희	원동훈	-	-	-	-	-
안내/방역 4 (부)	-	남혜원	-	-	-	-	-	-	남혜원	-	-	-	-	-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7/3 (토) 오후 7:00	이재돈	주태규 유성희	-
7/4 (일) 오전 8:30	서정원	윤춘호 윤영미	-
7/4 (일) 오전 10:30	이경환	손창욱 노우정	-
7/4 (일) 오후 1:00	Gabe Choi	Chris Shin	-
7/10 (토) 오후 7:00	이지연	최석인 신경아	-
7/11 (일) 오전 8:30	이진화	최인영 남송은	-
7/11 (일) 오전 10:30	강창미	이국진 이정란	-

예수회 후원회 증 강의 안내

- 7월 1일, 목요일 저녁 9시 (이곳 시간) 최성영 신부님- 내 마음의 정원
  - 7월 12일, 월요일 저녁 9시 (이곳 시간) 정제천 신부님- 가정과 결혼, 행복하세요?
  - 7월 19일, 월요일 저녁 9시 (이곳 시간) 조인영 신부님-'수도전통'에서 배우는 일상 속의 영성-사막의 교부들
- Zoom ID : 979 720 4403  
비밀번호: 1  
<https://us02web.zoom.us/j/9797204403?pwd=WEtHKollaWZmTWtmTnhPUiVqRmlGUT09>

◆교구 2차헌금 (Mission Cooperative Program)이 7월 10일 (토)/11일 (일)에 있습니다.

나의 순교 일지 2021년

일시: 2021년 11월 27일 (대림 1주일 전날)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을 맞아 일상 안에서 ‘작은 죽음’을 살아가며 ‘순교 영성’을 살아 가기를 초대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림 1주일) 교중 미사 때 ‘순교 일지’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제 21차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

주제: 자캐오야 열린 내려 오너라  
지도: 정만영 콜베 신부  
일시: 8월 8일 (일) - 12일 (목) 4박 5일  
장소: St. Ignatius House  
참가비: \$530 (인원: 선착순 22명)  
문의: 이형주 스텔라 (404-409-1220) 박철민 리나 (404-510-4604)

◆성모회 물품 판매

성모회에서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재배된 질 좋은 유기농 식재료들을 판매합니다. 참기름, 도토리 국수, 고사리, 병아리콩 등등.  
판매장소- 주차장내 장터 판매대

이냐시오의 해 세미나 시리즈

◆이냐시오 회심의 길

- 2021년 6월 28일: 김영훈 신부 (한국시간 7:30pm) '이냐시오의 회심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오늘날 우리의 소명과 응답'
- 2021년 9월 27일: 정제천 신부 (한국시간 7:30pm) '이냐시오 성인과 성령론'
- 2021년 11월 29일: 박진혁 신부 (한국시간 7:30pm) '캄보디아에서 성 이냐시오의 회심을 살아간다는 것...'
- 2022년 2월 28일: 김민 신부 (한국시간 7:30pm) '권위와 순명: 이냐시오로부터 (사목적으로) 배우기'
- 2022년 4월 25일: 정한채 신부 (한국시간 7:30pm) '이냐시오의 가난'

Zoom ID 539 496 7271  
PW 0731

대통령상 서비스 아워 프로젝트

목적: 주일학교 학생들의 사회봉사 참여 및 공동체 의식 도모  
참여대상: KMCC 소속 중등부 및 고등부  
프로젝트:  
1. 매달 넷째주 Austry Mill Nature Reserve 관리  
2. Habitat for Humanity fund 모금 (알루미늄 캔 수집 및 커뮤니티 리더쉽 프로그램)  
3. KMCC 환경 미화  
문의: kmccga.youngadult@gmail.com

예비자 교리반 봉사자 모집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에서 도움을 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6/19~7/31  
문의: 나상숙 (678-933-7313) 이영석 세례자요한 신부님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 성시간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환영합니다

- 세대주: 이경영 (아네스) 신자번호: 5528, 구역: 미정
- 세대주: 김향순 (엘레사벳) 신자번호: 5529, 구역: 미정

유아 세례식

일시: 8월 7일 (토), 오후 3시, 대성전  
문의: 사무실 (770-455-1380)

◆온라인 봉헌 안내

- 온라인 봉헌을 해주실 때는 이름과 신자번호, 봉헌 내역 (교무금, 주일헌금, AA 기금, 감사헌금, Angela Fund, Covid-19 Fund 등)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미사, 연평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님의 평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크신 보살핌 덕분에 큰 불상사 없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4월 28일, 애틀랜타 대교구는 코로나 기간 지속한 미사관면을 성령강림대축일 (5월 22일)부터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성당 교우분들의 백신접종 현황을 살핀 후, CDC의 방역수칙과 교구의 전례권고를 바탕으로 본당 미사전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 드립니다.

- ◆5월 22일 성령강림대축일 미사부터 신체건강한 교우들은 대면 미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미사참석자는 백신접종과 관계없이 본당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 ◆성체는 입으로도 영할 수 있습니다. 단, 손 영성체가 끝난 후 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중 성가 합창은 계속 중지하며, 교우간의 신체접촉도

이 방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과 기타 고위험군(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산부,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 위험을 느끼시는 분 등)의 교우분들은 온라인 미사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